서울제일교회 증언
질 그 릇
2022.8.7.
성령강림 후 9주
신연식 목사

의로 여긴 믿음

[1]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2]아브람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뿐입니다. [3]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람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4]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5]주님께서 아브람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6]아브람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람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창15:1-6)

[1]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2]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3]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히11:1-3)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서일과가 제시하는 구약성서 창세기 15장과 서신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람이 계약을 맺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15:1)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큰 보상을 주신다니', 듣기만 해도 아주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축복에 응하는 아브람의 대답이 신통치 않습니다. 아브람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15:2)

본문은 '아브람이 여쭈었다'(2a절) 하고 기록하고 있지만, 아브람의 대답은 하나님께 여쭌다기보다는 왠지 좀 따지는 듯한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대답이라고 보기에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더 납득이 가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대답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혈통으로 상속자가 나올 것이고 장차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축복하며 약속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고 본문이 전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 본다면 왜 이렇게 아브람의 대답을 했는지,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인지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12:3)

이때 아브람의 나이는 75세로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무작정 신앙의 여정에 나선 아브람의 삶은 매우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축복의 땅이라 믿고 도착한 가나안 땅은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를 피해 이집트에 내려갔지만, 이곳에서도 역시 아내를 왕에게 빼앗길 처지

에 놓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후 조금 여유가 생겼다 싶으면 함께 떠나온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겨서 땅을 분할하고 옮기게 되고, 또 괜찮아졌다 싶으면 동방의 다섯 왕이 쳐들어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간신히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해오고, 약탈당한 모든 것을 되찾았을 무렵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시더니 그 약속은 어찌 되고 지금 와서 또 말씀하십니까?' 싶은 것이지요. 그동안 삶을 지탱하기 어려울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뤄지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의 그 약속은 유효하기나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아브람의 마음은 참으로 어둡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는 아브람의 대답은 아마도 이런 어두운 마음의 항변일 것입니다.

돌아보면 아브람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굳건한 신앙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마음이 어둡고 지치고 괴롭던 순간이 되면, '하나님! 도대체 계시긴 한 겁니까?'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 겁니까?'하고 항변하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22편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탄원하며,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의 항변도 그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퉁거리며 항변하는 아브람의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이 찾아와 확실한 약속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한 땅을 소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불안한 듯 또다시 묻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8절)

한마디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무엇으로 믿을 수 있냐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의심하는 아브람에게 가장 확실한 약속, 즉 계약(契約)을 체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창세기 15장 9절, 10절, 17절을 보면 계약 체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짐승을 둘로 가르는 의식으로 계약 체결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서 가운데 놓고 계약자가 마주 보고 앉아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편이라도 계약을 어길 경우에는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짐을 당한다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입장에서 계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아브람에게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약속을 보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목할 것은 계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양자가 상응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내세우며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규례와 명령을 따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하는 방식으로 조건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계약 내용을 보면 조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와 땅을 주시겠다.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지만, 그 어떤 조건도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아브람의 믿음에 주목하곤 합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람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긴 믿음은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확실한 약속인 계약을 체결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만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믿음과 축복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얻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아브라

함은 언제나 모범적인 종교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집 떠난 이들이 누구나 그럴 수 있듯이 언제나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에 대한 유혹에 직면했고 실제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첩을 얻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일도 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그가 윤리 종교적 이상적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모든 허물과 죄, 수많은 상처로 얼룩진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과 종교적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호와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람과 계약을 맺은 것 역시 아브람의 믿음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아브람을 주인공으로, 아브람의 믿음이 주요주제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초점은 아브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본문은 아브람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이 있어서 약속하신 축복을 확실하게 지키신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잊혀지거나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 '약속을 떠나서 좌절하거나 절망한 채 살아가지 말아라.'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도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람을 부르시고 선택하는 장면부터가 그렇습니다. 아브람이 대단해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떠돌이 집단'의 이야기입니다. 자발적으로 고향 땅을 떠난 것이 아니라 위해서 살펴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쫓겨난 집단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희망입니다. 쫓겨 다니며 살 수밖에 없던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 있는 신앙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는 신앙고백인 것입니다.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억눌림과 고난 속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새 세상을 찾고 건설하라는 적극적인 희망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늘 떠날 수밖에 없었던 불안한 상황에 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좌절과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고, 그런 신앙이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힘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떠돌이 집단’들은 이 희망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것으로 전승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신앙고백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백 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떠돌이 집단들에게 자신들의 꿈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희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불가능한 일인 백 세 노인의 출산은 그들의 간절한 소망인 땅 정착은 결코 헛된 꿈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떠돌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확인해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희망은 결코 꺾이지 않는, 꺾일 수도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자 믿음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로 삼았습니다. 이 신앙을 자신들의 표준으로 삼고 현재 닥친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을 합니다.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노예살이를 했고 그발강가에 모여 살았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서 안정된 삶을 이어오던 이들이 또다시 포로로 끌려가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을 품기 어려운 현실은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이사야 49장 19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 고백과 같은 짙은 절망이 그들에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떠올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롭고, 힘겨운 아브람에게 변함없이 확실한 약속을 주신 하

나님을 기억해 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없이 유효하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이 그들의 포로생활을 견디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니고 사는 것,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사는 것입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이란 내가 의로운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매우 간단합니다. 믿음은 곧 희망입니다. 희망의 바탕으로서 믿음은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고후 4:18)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고후 5:7)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롬8:24)

교우 여러분!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내가 바라고, 추구하고 노력하는 결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바라고 희망을 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날씨가 흐리다고,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별이 없는 것입니까? 다시 날이 개고 맑

은 날이 되면 별빛은 선명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닥치는 어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힘들더라도 다시금 날이 맑아지면 깨끗하게 별이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간직해야 할 사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계획과 약속은 파기되지 않으며',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로마에서 박해를 견디고 로마교회 형제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롬8:35-39)

오늘 우리는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하는 그 길에서 우리는 여전히 여러 어둠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깊은 신뢰 속에서 새롭게 호흡하며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폅시다. 이제는 할 만큼 했다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이 너무 크고 많다며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것만이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둠의 역사를 넘어서서, 인간의 응답이나 순종을 넘어서서, 권력자들의 억압이나 불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 믿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